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2.(화) 17:0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시	
담당부서	청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전문관	신언성 김순	전화번호 043-272-0365

3일 밤~4일 새벽, 충북북부 많은 눈

- 3일 밤~4일 새벽, 충북북부 강하고 많은 눈
 - 충북북부 3~8cm, 충북중·남부 1~5cm
 - 충북 곳곳 빙판길, 4일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



[2월 3일(수) 밤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청주시상지청(지청장 이경희)은 3일(수) 밤~4일(목) 새벽에 충청북도 전 지역에 눈이 예상되고, 특히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, 4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청주시상지청은 3일 밤~4일 새벽에 제주도 남쪽해상을 이동하는 고기압과 중국 북부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사이에서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고,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충청북도 전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2일 현재 우리나라 내륙을 중심으로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,
- 3일 밤에 충청북도는 서해북부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남쪽 해상에 위치하는 고기압 사이로 ① 온화하고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불어들면서 강수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밤 동안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이동함에 따라 ② 저기압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 구름대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고,
- 이후 찬 공기에 밀리는 눈구름대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북도는 4일 새벽(06시)에 눈이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

[강수 전망]

-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북도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.
- 눈 구름대가 북쪽에서부터 강하게 발달하여 이동하면서 **충북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면서**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
 - 특히, 늦은 밤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눈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고, 이 영향으로 1~2시간 동안 적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 예상 적설 >

※ 3일 밤(21시)부터 4일 새벽(06시) 사이

- 충북북부: 3~8cm
- 충북중·남부: 1~5cm

- 청주기상지청은 “4일 자정(00시) 이후부터 새벽(03시)까지 눈의 강도가 강해질 것”으로 예상하였다.
 - 4일 새벽~아침에는 저기압 북서쪽에서 뒤따라 들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 쌓인 눈이 녹지 않아 **빙판길**이 될 가능성이 높아 **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** 전했다.
- 또한, 이번 강수 예보의 관건은 1~2℃ 가량 미세하게 변화하는 지상 부근의 기온과 강수 시작 시점에서의 눈·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

- 강수 구름대가 유입되기 전에 낮 기온이 다소 오를 경우 충청북도는 진눈깨비로 먼저 시작되면서 적설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혔다.
 - 하지만, 이 경우에도 뒤따라 유입되는 찬 공기로 인해 늦은 밤에는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.
 -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지상 및 대기 하부(700~800m 상공)의 기온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, 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는 **3일 낮부터는 1~2시간 간격으로 강수의 시작 시점과 형태에 대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발표**하겠다고며,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.
- 이후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공에 자리 잡는 온화한 공기에 의해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.